

삼원테크 LCD필름 공장 화재

평택공장 화재로 6억원 피해 ... 공장동 1층 열처리 라인서 불길

평택에 위치한 삼원테크의 LCD(Liquid Crystal Display) TV 필름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5월4일 오후 10시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삼원테크의 LCD TV 필름 제조공장의 공장동과 사무동 2개 건물에서 불이 나 내부 1000여㎡와 집기류를 태워 6억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후 6시간만에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10여명의 직원들이 야간작업 중이었지만 일찍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0여대와 소방관 70여명이 동원돼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원재료가 타며 유독가스가 치솟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동 1층의 필름 열처리를 하는 쪽에서 불길이 솟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06>